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AFRICA

아프리카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09/21~09/27

1. 수에즈 운하 복귀에 따른 유럽-아시아 항로 재편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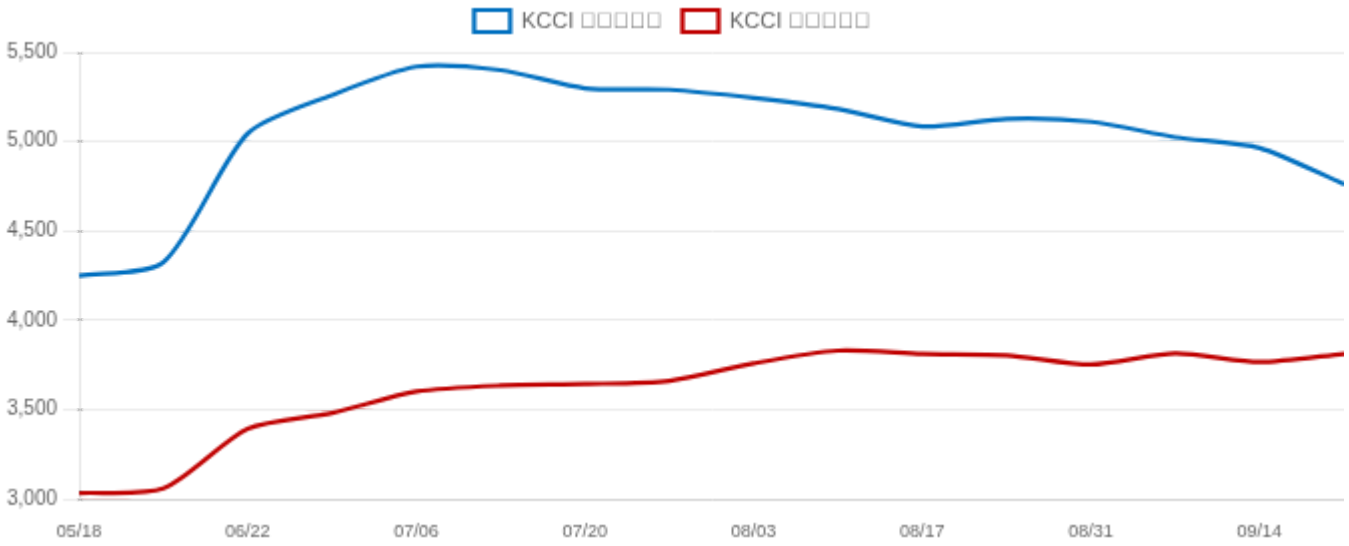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아프리카 권역 핵심 흐름은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의 복귀와 그에 따른 유럽-아시아 해상 물류의 재편 움직임임.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 등 주요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 경유 서비스를 재개했으나, 홍해 안보 불확실성과 항만 체선, 기상·노사 문제로 공급망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이러한 항로 재편은 유럽과 아시아 간 운송 시간과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프리카 주변 해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물류 지연과 운임 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사들은 대체 항로와 운항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서아프리카	4,761 $/FEU	09/21	-4.1%	-7.1%
KCCI 남아프리카	3,814 $/FEU	09/21	+1.3%	+0.2%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9/21

수에즈 운하 복귀에 따른 유럽-아시아 항로 재편

>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가 AE19·AE15 서비스의 수에즈 운하 경유 복귀를 발표했지만, 홍해 안보 불확실성과 항만 체선, 기상·노사 문제로 아시아-유럽 항로의 공급망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음.**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는 홍해 안보 상황 평가 후 AE19와 AE15 서비스를 희망봉 우회에서 수에즈 운하 경유로 전환함. 이는 수에즈 노선의 점진적 복귀 단계이나, 동서 항로 전반의 완전한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이번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북유럽과 지중해 주요 항만의 체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한 수요와 운영 제약으로 선복이 압박을 받고 있음. 특히 독일 항만 노동쟁의와 벨기에 터미널의 도선사 부족 문제가 유럽 항만 운영에 부담을 더함.

아시아-유럽 항로는 예년보다 강한 태풍 시즌으로 홍수·체선·선박 지연을 겪고 있으며,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로 인한 인력 감축과 공장 휴무가 물류 운영에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임.

머스크는 터미널 유동성 유지를 위해 화주들에게 조기 예약, 정확한 화물 예측과 서류 제출, 수입 컨테이너의 신속한 반출을 권고함. 이는 체선과 지연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머스크·하파그로이드, AE19·AE15 서비스 수에즈 운하 경유 전환
- 홍해 안보 상황 평가 후 점진적 복귀 단계로 판단, 전면 복원은 아님
- 북유럽·지중해 주요 항만 체선 지속, 독일 항만 노동쟁의와 벨기에 도선사 부족 영향
- 아시아-유럽 항로, 강한 태풍 시즌으로 홍수·체선·선박 지연 발생
-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로 생산·물류 운영 추가 압력 예상

전망

단기적으로 수에즈 운하 통항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홍해 정세 불안과 동아시아 기상 여건, 유럽 항만 노사 문제가 겹쳐 아시아발 유럽행 공급망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선사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가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체선과 지연 완화를 위해 화주와의 협력이 중요해질 것임.

시사점

화주 — 수에즈 복귀로 리드타임 단축 가능성이 있으나 항만 체선과 기상·노사 리스크가 잔존하므로 조기 예약과 정확한 화물 정보 제공, 신속한 반출로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해야 함.

포워더 — 노선 변경과 체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고객에게 대체 경로와 일정 조정 옵션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함.

항만·터미널 — 유럽 주요 항만은 노동쟁의와 도선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에즈 복귀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처리 능력 확보가 필요함.

참고자료: Transport Corridors, 머스크·하파그로이드, AE19·AE15 수에즈 운하 복귀 (검색일: 2026-09-27)